

김태호 광주대 명예교수, 60년 전과 똑같은 일정으로 도보여행

“아직도 60년 전 그 여름의 더위와 배고픔이 생생합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아버님이 끌던 손수레를 타고 피란길을 떠났던 세 살에서 열두 살의 우리 남매들도 어느덧 60, 70대 노인이 되었군요. 60년 동안 가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발전한 우리들의 가족사가 바로 우리 현대사인 것 같아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김태호 광주대 명예교수(67·행정학)는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해 가족들과 함께 오는 10일 ‘희상의 피란길’을 떠난다. 6·25 당시 서울 삼광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김 교수와 가족은 여수 선한 시국을 살피다가 뒤늦게 서울을 떠났다. 김 교수의 아버지 김재순씨(1983년 작고)는 슬

하에 10남매를 뒀다. 서울사범대생이던 큰아들 을 비롯, 3남매를 먼저 고향인 전북 고창으로 보내고 8월 말에야 남은 7남매와 제수·조카 등을 손수레에 태우고 고난의 피란길에 올랐다. 아기는 업고 큰아이는 걸리면서 18일 만인 9월16일 고향에 도착했다.

오는 10일 출발하는 피란길도 60년 전과 똑같은 일정이다. 서울 용산 후암동 삼광초등학교에서 출발, 한강을 배로 건너 서빙고 나루터, 첫날 묵었던 과전을 지나 수원, 천안, 공주, 논산, 김제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격포와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에 이르는 300여km를 국도를 따라 걷는다. 당시엔 9월에 도착했지만 이번엔 오는 24일

도착 예정으로 한식 절기에 맞춰 고향에서 성묘 행사도 열 계획이다.

2년 전 김 교수가 이 행사를 제안했고 의기투합한 가족들은 지난 11월 사전답사도 다녀왔다. 하루에 걷는 거리와 이동경로, 숙박예정지, 도로상황 등을 개략적으로 구상하고 확인한 후 소요경비와 담당자도 정했다. 이번 답사길에는 김 교수와 아내, 동생 가족 등 10여명이 참여한다. 당시엔 굶거나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헛간 등지에서 잠을 청했지만 이번엔 지역의 별미를 맛보고 편안한 숙소에서 잔다. 무엇보다 보조 이동수단도 손수레가 아닌 9인승 승합차다.

당시에 일곱 살이던 김 교수와 네 살, 다섯 살이던 남동생들은 여과 없이 쪼여대는 자외선과 극심한 영양실조로 시력이 크게 나빠져 모두 고도근시가 됐다. 하지만 가난과 아픔을 극복하고 모두 열심히 공부해 한몫을 하는 사회인으로 자랐다. 공무원 출신인 김 교수는 2년 전 정년 퇴직해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두 남동생도 고위공직자로 일했다. 2007년 5월에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당시 의용군으로 나갔던 김 교수의 둘째형이 1996년 북쪽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게 됐고, 그 가족들과의 감격적인 만남도 이뤄졌다.

“포탄이 오가는 삼복 더위에 손수레를 끌고 가족을 무사히 고향에 데려온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린 애였던 동생들도 이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직도 통일이 안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 평생 소원인 통일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60년 전의 피란길을 또박또박 걸어보겠습니다.”

유인경 기자 alice@kyunghyang.com



6·25 전쟁 당시 부모와 함께 간 피란길을 따라 도보여행을 가는 김태호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와 가족이 오는 10일 출발에 앞서 답사에 나선 모습.

“7개월의 작업,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

김달진 연구소장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 I’ 출간

김달진미술연구소가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 I>을 펴냈다. ‘채용신(1850~1941)에서 사석원(1960~)까지’가 부제다. 1850년부터 1960년까지 태어난 50세 이상 작가 4254명과 70년 이전 태어난 40세 이상 비창작 분야 인사 655명 등 4909명의 출생지·학력·전시경력·사회경력·상훈·현직 등 기초정보를 수록했다.

출간일인 31일 만난 김달진 소장(55·사진)은 “7개월간의 작업 기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면서 어려웠던 작업 과정부터 털어놨다. “신문 부음란을 계속 확인하지만 부음란에 나오는 미술인은 극소수의 유명인뿐이죠.

생존 작가로 소개되어 있는데 확인해보면 3년 전에 사망했다고 하고... 진지, 출신대학, 유족을 수소문해 하나씩 자료를 채워나갔습니다.”

김 소장은 “교정·교열을 수백번씩 보며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직원들도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하느라 많이 고생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 기록문화의 척박함과 함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예우 부족도 절감했다고 한다. “이중섭·박수근의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한국 미술사에 의미 있는 작업을 한 동년배 작가 대부분은 그저 타계하면 별 기록도 없이 잊혀져버린다”고 안타까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만든 이번 인명록에는 기존 미술연감·인명록에 빠져 있던 월북·남북, 재외동포, 행방불명 미술인 정보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최장수 미술인은 100세의 장발(1901~2001), 요절한 미술인은 23세의 강신호(1904~27) 같은 이색 기록도 담았다.

김 소장은 “책을 내서 좋은데, 또 내고 나면 너무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며 “이번 인명록을 주춧돌 삼아 대상 작가의 나이는 40대, 분야는 공예·서예까지 넓히고, 작품평과 대표작 그림까지 넣어 명실상부한 미술인 인명사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